

PE캔 수급 불균형 표면화

가격 15% 하락 20l 기준 1700원 ... 수요 증가는 낙관

알루미늄캔 등 기존제품의 대체품으로 그 수요가 확대되어 왔던 PE캔 시장이 원료의 공급과잉 등 수급 불균형이 표면화 됨에 따라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PE캔의 국내기업은 크로바프라스틱을 비롯해 대진화학, 내쇼날 프라스틱, 덕우화학, 성창화학 등 10여개 기업인데 이 가운데 크로바프라스틱은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덕우화학은 자체소비, 성창화학은 5ℓ와 10ℓ 생수통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의 생산능력은 현재 크로바프라스틱 20만개, 대진화학 10만개, 내쇼날프라스틱 10만개, 덕우화학 10만개, 성창화학 4만5000개, 삼원화학 2만5000개, 현대성형 2만3000개, 성광화학 2만개 등이며 이 가운데 10만개는 탱크와 캔, 드럼 형태로 삼성물산, 선경물산 등 전문수출 상사를 통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PE캔 가격은 93년 20ℓ 기준 2000원이던 것이 94년들어 15% 하락한 1700원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원료의 과잉공급 등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악화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산이 월 2000톤 수입되고 있으며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PE캔 시장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용된 PE캔은 회수 후 가공이나 세척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데,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가 환경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세척기업이 두 곳에 불과해 폐수처리 문제를 둘러싼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등 캔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PE캔은 알루미늄 등 타제품에 비해 가격과 성능면에서 우수할 뿐 아니라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아직까지 대체물질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료의 수급이 원활해질 경우 침체된 수요시장이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6/6>